

전남 동부권 화물연대 파업

광양제철 협력 운송사 6곳 270대 중 240대 동참... 물류차질 우려

전남 동부권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가 파업에 돌입, 일부 물류차질이 우려된다.

전국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광양제철 협력 운송사 등 8개사와의 운임 인상안 협상 실패를 이유로 11일 오전 광양시 태인동 부두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들어갔다.

전남지부는 최근 8개 운송사 측과 현 운임 대비 9.9% 인상안을 놓고 5

차례의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에는 6개 광양제철 협력 운송사의 화물차 270여대 중 240여대가 동참할 전망이다. 일부 물류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남지부 관계자는 "전남 전체 노조원 차량이 총 1000여대로, 이 가운데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파업에 350대 정도가 동참하고 협상 타결 여

부 등 추후 상황에 따라 파업 동참 차량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양제철 관계자는 "예고된 파업이어서 협력사들이 미리 물량을 확보, 납품을 해 당장의 물류 파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운송수단을 차량에서 배나 열차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4079@

보성 회천서초교 "택시타고 서울나들이 했어요"



보성지역 초등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신나는 서울나들이를 했다.

보성군 회천면 회천 서초등학교(교장 공경열) 학생과 교직원 등 30여명은 지난 6~9일 2박3일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시지부 강북 모범운전자지회(회장 이상홍)에서 제공한 모범택시(8대)를 타고 서울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첫날 강북구청에서 열린 환영식을 시작으로 임진각, 통일전망대, 63빌딩, 경복궁, 롯데월드 등을 체험하고, 강원도 고성 관광초등학교

학생들과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2회째인 서울 문화체험 행사는 지난해 서울 강북 모범운전자회와 회천 서초초등학교간 자매결연 체결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상홍 회장은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 하다 보면 마음까지 넉넉해 지기 때문에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경열 교장은 "두해째 이어진 모범운전자회와의 인연이 학생들에게는 교과시간으로는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체험이 됐다"고 평가했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곡성군 공무원 세법 책거 부가가치세 20억 환급받아

곡성군 한 공무원이 세무회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3개월에 걸쳐 개정 세법에 대한 실무 적용으로 20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재무과 박호근 주무관(40)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업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환급공제서류를 챙겨 자칫 시기를 놓쳐 환급받지 못할 재원을 찾아내 관주세무서로 부터 지난 10일 20억4700만원의 환급받았다.

군은 관련 세무서 부서에서 고충 민원을 신청해 필요한 서류를 찾아 제출해 기차마을과 심청이야기 마을의 숙박시설 등 2009년 이전 공사비 매입세액에 대해 1억7000만원, 2009년 이후 결정청구 매입세액에 대해 18억7000만원 등 총 20억4700만원을 환급받기에 이르렀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정원박람회 10만명 유치하자” 순천시-농협중앙회 성공개최 협약

농협중앙회가 내년 4월 순천에서 열리는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관람객 10만명 유치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순천시와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조충훈 시장과 성병덕 농협은행 부행장, 조영조 농협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범 농협 차원에서 관람객 10만명 이상 유치와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농협중앙회는 자회사를 포함한 전 조직과 인력을 모두 활용해 관람객 10만명 이상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에



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순천시는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농협은 순천 정원박람회가 화훼, 조경, 원예 등 국내 농·임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특별한 조건없이 전사적으로 정원박람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황길주 NH농협은행 순천시지부장은 "28만 순천시민과 농업인들의 열렬한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농협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농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원박람회가 성공하면 순천이 친환경 생태도시로 변모하여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이미지 향상과 관광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여수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

피해액 180억 초과 집계

정부가 제 15호 태풍 불라벤과 제 14호 태풍 덴빈의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 등 1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여수시도 조만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기준 한만 및 어항시설 포함 피해액이 18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 90억 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소방방재청 현지 실사로 피해금액 최종 확정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선포하게 된다.

이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금액 중 지방비 부담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지방비 부담이 줄고 피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감, 전기·통신료 감면, 재해대책자금 융자 지원 등의 세제 및 금융 혜택 등이 주어진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기 위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임민택기자 mtim@

‘오! 여수 4대 시민운동’ 추진

세계 박람회 성공개최를 이끈 ‘엑스포 4대 시민운동’(청결·질서·친절·봉사)이 ‘오! 여수(Oh! YEOSU) 4대 시민운동’으로 재접촉한다.

여수시는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래브리핑을 갖고 "박람회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협조해 박람회 성공개최의 원동력이 됐던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을 세계 4대 미항에 걸맞는 품격 높은 시민운동으로 정착하기 위해 ‘오! 여수 4대 시민운동’으로 재접촉 추진해 한 단계 높은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박람회 기간 중 운영했던 시책들을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시와 시민, 자매결연 단체(유관기관·사회단체, 기업체,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대대적인 범시민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관 기관단체와 자매결연 단체별 4대 시민운동 추진목표를 설정해 실천을 유도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오! 여수 4대 시민운동’ 중점 실천의 날로 정해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이 박람회 성공 개최를 이끌어 냈듯이 ‘오! 여수 4대 시민운동’도 국제 해양관광지 스포츠수도를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임민택기자 mtim@

전 북

‘김제 지평선축제’ 막바지 준비 한창

‘김제 지평선축제’ 개막을 29일 앞둔 가운데 김제시는 지난 11일 축제 프로그램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축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지평선 축제는 "풍요를 약속하는 생명의 땅! 지평선을 펼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총 7개 분야 63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로 응모하는 지평선의 고장 김제의 비전을 선보인다.

시는 올해 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공간구성에 많은 변화를 준만큼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올해 축제는 김제만의 대표 민속놀이인 '벽골제 상용 햇불놀이'를 비롯해 관광객이 직접 뽕 벼를 도정해 쌀밥을 지어 먹어보는 '미니 아궁이 쌀밥체험', '지평선 야간 놀이마당', '지평선 자전거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제14회 김제 지평선축제'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김제 벽골제에서 개최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마을기업’으로 희망찾는 정읍 정문마을

웰빙센터에 두부만들기 체험·판매장... 일자리 만들고 소득 증대

정읍시 용계동 정문마을 주민들이 우리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파는 '마을기업'을 통해 희망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

60~7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41세대(120명)가 농업을 생업으로 하던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지난 7월 준공된 '웰빙 체험센터'가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건립된 웰빙체험센터는 마을 주민이 주체가 돼 운영되는 마을기업이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해 있는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지역주민이 직접 주체가 돼 역할분담을 통해 아이돌봄 등 사업을 구성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 간다.

웰빙 체험센터는 부지 873㎡·건물면적 243㎡ 규모로 두부 만들기 체험장(93㎡)과 식당(108㎡), 특산품 판매장(42㎡)을 갖추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정읍에서 생산된 콩을 원료로 두부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임에도 하루 40여kg의 콩으로 100모의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 한 모당 가격은 3000원이다.

시내권은 주문하면 직접 배달(10모 이상)해준다. 정읍에서 직접 생산한 100% 우리 콩으로 만든 두부는 어느 두부보다도 고소하고 부드러운데다 콩 특유의 향이 살아 있다.

내년부터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콩을 원료로 두부를 만들기 위해 올해 2만여㎡에 콩을 심었다.

마을식당을 찾는 사람도 꾸준히 늘고 있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직접 키운 농산물들로 꾸며진 밥상은 말 그대로 보약이다. 메뉴는 순두부, 두부전골 등 다양하다. 백반 1인분은 5000원으로 가격도 저렴하다.

두부와 식당 모두 입소문이 나면서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8월 31일

현재 매출액은 1800여만원에 달한다.

정문마을은 두부 만들기 체험장도 갖추고 있어 직접 콩을 씻어 불리고, 갈아 두부를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웰빙 체험센터를 중심으로 한 미래 청사진을 마련했다.

마을앞 제방 1.2km 370여㎡에 속과 미나리를 심어 체험장으로 가꾸고, 16만5000여㎡의 녹차밭 체험장 운영, 자연 소나무 숲속 초가와 한옥 체험단지 조성, 민물장어와 참붕어 생산을 통한 낚시와 고기 그물잡이 체험 프로그램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농촌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철 마을운영 위원회장은 "주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불우이웃 위한 사회봉사 활동 확대할 것”

이숙자 남원 허브라이온스 클럽 회장

남원 허브라이온스 클럽 이숙자 신임 회장이 최근 취임했다.

이번 회장 취임식에서 이 회장은 남원 애항장학숙 건립기금으로 300만원을 기탁했다.

이 회장은 "임기 1년 동안 '봉사와 화합, 진정한 열정'이라는 슬로건아

래 클럽의 번영과 회원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내고향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많은 회원들 영입해 명실상부한 봉사단체로 거듭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소외되고 어렵게 사는 불우 이웃 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고창군청 여자유도부 몽골월드컵 銅 4개 획득

고창군청 여자유도부가 지난 8~9일 이틀간 열린 2012 몽골월드컵 국제 유도대회에 출전해 4체급에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고창군청 여자유도부는 이번 유도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둬 한국팀 종합성적 금메달 7개·은메달 3개·동메달 6개로 종합 1위를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첫날 경기에서 고창군청 소속 김영란(-48kg), 이지연(-57kg), 김미화(-

63kg)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따내 한국대표팀의 메달 행진에 시동을 걸었으며, 이튿날은 조혜진(+78kg 무제한) 선수가 동메달을 선사했다.

한편 고창군청 여자유도부는 올 초 벌어진 '동아시아 유도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 2·동메달 3개의 성적을 거둬 대한민국 여자유도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시설하우스 고쳐드립니다”

고창군 공무원들이 최근 태풍 '블라벤'과 '덴빈'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를 찾아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 제공>

단신

전북도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 참가酒 선정

전북도는 '2012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 참가할 도내 대표적 인 술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제 한식조리학교에서 품평회를 열고 전통 술인 '이강주' 등 8개 주종에 16점을 뽑았다.

부문별로 보면 생막걸리는 '산수유 보리쌀 막걸리', 살균 막걸리는 '전주 모주', 청주는 '황진

이', 증류식 소주는 '황금보리소주', 일반 증류주는 '진심홍삼인삼주', 리큐르는 '이강주', 과실주는 '머루와인', 기타는 '주몽 복분자' 등이었다.

이날 품평회에는 막걸리와 과실주, 증류식 소주, 기타 주류 등 총 30점이 경합을 벌였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서부산림청, 성묘객 위해 국유림 임도 개방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국유림 임도가 전면 개방된다.

서부 지방산림청은 벌초와 성묘 등으로 조성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을 위해 전남·북과 서부 경남지역 등 53개 시·군·구내 590km의 임도를 다음달 6일까지 한

시적으로 개방한다. 임도는 평소 산불과 임산물 무단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해왔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임도는 일반도로보다 길폭이 좁고 안전시설이 미흡해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정읍시 터미널~성림마트 사거리 지중화 사업

정읍시는 총사업비 30여원을 들여 터미널 사거리에서 성림마트 사거리까지 530m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중앙로 구간에 거미줄 같이 얽혀있는 전선·통신선 등을 지중화하고 도로정비, 우수관과

가로등, 편의시설 등을 오는 12월 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성림마트 사거리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향의 차량 통행을 부분통제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도내 유일 보장구 수리비 지원

순창군이 전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월에 제정하고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

군은 관내 보장구 사용인원을 250명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보장구 수

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조례 제정을 통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0여명의 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063-650-1202)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